



# 슬로바키아, 2025년 국내 돼지에서 ASF 첫 발병 보고

2025년 5월 9일/ SR SVPS와 MAPA의 데이터를 보유한 직원 333명.

2025년 5월 14일 (어제)

2025년 5월 2일, 즈볼렌의 국립 표준 연구소는 레비체 구의 돌네 세메로브체 지적에 있는 상업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슬로바키아에서 2025년에 기록된 최초의 가축 돼지 발병 사례입니다.

CEHZ 219375로 확인된 해당 농장에는 총 18,458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5월 1일에 첫 임상 증상(발열, 무기력, 설사)이 관찰되었습니다.

발병이 확인되자, 국가수의식품안전청(SR SVPS)은 해당 농장을 오가는 동물 이동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레비체와 크루피나 지역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여 발병 지점 주변 3km의 보호 구역과 10km의 감시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발견 후 주말 동안 농장의 완전한 방역이 계획되었고 5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R SVPS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바이러스 전파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종의 동물, 돼지고기 가공품, 육류, 정액, 난자, 배아, 사료, 도구 및 폐기물의 이동도 제한되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2019년 7월 25일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질병이 확인된 이후 현재의 발병을 제외하고 가축 돼지에서 45건의 발병(2019년 11건, 2020년 17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 2024년 1건)과 야생 멧돼지에서 3,444건의 발병(2019년 27건, 2020년 388건, 2021년 1,658건, 2022년 561건, 2023년 535건, 2024년 165건, 2025년 110건)을 보고했습니다.